

전주시 상상동아리 '아모플러스' 독서토론 '후끈'

시민동아리 '책바라기' 와 함께 매월 좋은 책을 통한 정보공유와 재능나눔 실천

최근 작가 한강씨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세계 3대 문학상중의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문학서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상상동아리인 '아모플러스'가 시민 독서동아리인 '책바라기'와 함께 꾸준히 독서토론을 가졌다. 화제가 되고 있다.

아모플러스는 전주시청 직원 13명(시서직 9명, 행정직 4명)으로 이루 어진 독서토론 동아리로 지난 2007년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매월 한 번씩 독서토론을 개최하며, 청원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좋은 책을 통한 다양한 정보공유와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서신도서관에서 2009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민 독서동아리인 책바라기와 아모플러스 회원 30명은 지난달 27일 이숙현(이안유코칭센터

대표)강사의 진행으로 '성인을 위한 이솝우화'라는 책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함께 나누었다.

지금부터 2600여년전에 쓰여진 이솝우화는 어린이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지만 성인의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

이날 연합 독서토론은 110편의 우화를 중에서 각 회원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우화와 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화를 서로 서로 소개하고 느낌과 소감을 공유했다.

회원들은 같은 우화를 읽은 후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생각과 사고를 넓히고 현재 각자 처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었다.

한편, 전주시 동아리인 아모플러스는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서동아리와 지속해서 연합 독서토론을 실



전주시 동아리 아모플러스는 연합 독서토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시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즐거움을 선도하고, 초등학교 도서관의 서가 정리 나눔봉사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 배포, 진로코칭 특강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완산경찰서, '문지마 범죄' 신고 시민에 감사장 수여

전주완산경찰서(서장 강하연)는 1일 문지마 범죄를 신고해 범인 검거를 도운 오모(47)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오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46분께 전주 덕진구 덕진광장에서 "어떤 남자가 손을 드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다"며 "택시를 타고 종합경기장 지하보도를 지나 오거리 쪽에서 내린다"고 112로 접수하고 구체적 상황을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완산구 오거리에서 신고 접수 9분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오씨는 "문지마 범죄로 세상이 흉흉한데 경찰의 빠른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신고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고 결손한 모습을 보였다.

강하연 완산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는 초기 범인 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셔서 빠른 시간 안에 검거 할 수 있었다"며 오씨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함을 표했다.

/인진수기자

전북교육청, 전통문화전당과 협약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로 협력

전북도교육청이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이 다양한 정보 공유와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학부모와 학생의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 공유,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기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하게 된다.

/고민형기자

사람들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인후3동 새마을협, 캡틴이용원에서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소외계층 어르신 등 이미용 봉사 인후3동(동장 최성식) 새마을협의회(회장 횡승일)은 1일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 10명을 초청해 캡틴이용원(이용사 김준섭)에서 이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준섭 이용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이

발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초대해 이용봉사를 실시했다.

최성식 인후3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새마을협의회에 고맙다"면서 "특히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한 김준섭 이용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경찰청, 한국소리문화전당서 대테리 연합훈련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1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경찰특공대와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전북소방본부, 제35사단 등 도내 8개 기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테리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지난해 작년 프랑스 파리테러 사건처럼 불특정다수를 이용하는 공연장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진행 폭발과 화재, 회화기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상황을 가정하고 유관 기관의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공연 중 발생 가능한 시제폭발물의 심신고와 안전요원들의 관리 객대피 유도와 경찰의 현장통제 등 초동조치와 함께 경찰특공대의 폭발 물 탐지와 처리로 시작됐다.

또한 인질 테러 상황을 가정한 경찰 위기협상팀의 협상기법 시연과 경찰특공대 전술팀의 테러범 격거 작전, 전주대전소방서의 일사 부상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 등 다양한 훈련이 이어졌다.

/인진수기자

전북동부보훈지청,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본부와 업무협약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최기용)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규순)는 1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로 산림조합중앙회전북지역본부는 전북동부보훈지청과 긴밀한 협업으로 현충시설 주변 정비 및 독립유공자 묘소 정비 등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천할 예정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일 전주 덕진동에 위치한 순국기도회 현충비 주변 정비·봉사활동에 나선다.

최기용 동부지청장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교통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1일 전주영업소를 비롯한 관내 39개 모든 영업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문명국본부장을 포함한 도로공사 직원 및 악자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 직원 3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일반차량 및 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민자 수 감소를 위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 '화물차 출입사고 예방'을 집중 홍보했다.

/신광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행복한 진짓상' 배달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전주시 완산구 만지길 독거노인 등 2명에게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고 인부를 묻는 행복한 진짓상 배달행사를 가졌다.

행복한 진짓상은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독거노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해 독거노인의 건강 증진과 고독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이다.

김학원 본부장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연말까지 매주 도시락을 배달해 조금이나마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적적함에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장수군 노인대학, 건강 스피치 특강 개최

장수군 노인대학 특강이 1일 오전 9시부터 3시간동안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교육실에서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특강은 고령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 학대 증가, 노후대비 미비, 노인 고독사 등이 문제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주제는 노인의 행복을 위한 건강 스피치로 전북대평생교육원 전담 교수와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양숙 강사가 진행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양숙 강사는 "오늘 배운 스피치 기법으로 어른으로써 호감과 존경받는 사람됨이 됐으면 좋겠다"며 "생활 스피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뻤다"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완산구 건축과, 과수 농가 일손 돋기 팔 걷어붙여

완산구청 건축과 직원 10여명은 1일 오후 색장동 원색장마을 과수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사 인력이 부족한데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농촌의 일손을 돋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공무원들은 배 과수원에서 봉지 써우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원색장 마을 임 모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구청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신명춘 건축과 과장은 "어려운 농기를 위해 봉사하고 사무실을 벗어나 농촌 체험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적은 힘이지만 농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